

위정척사파의 정치적 현실인식

윤 순 갑*

차례

- I. 문제의 제기
- II. 형성기의 정치적 상황
- III. 정치적 현실인식
- IV.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세기 중엽 이후 조선조 한국정치사회에서 전형적인 보수세력이었던 위정척사파 지식인들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 그들은 정통사상이었던 주자학적 유교사상에 입각해서 동시대의 대안적 사상가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독특한 인식체계를 수립하였다. 즉, 도덕적 규범주의, 본말론적 가치관, 그리고 이상주의가 그것이다. 이러한 인식체계를 통해서 바라본 대내적 모순과 대외적 모순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내적 모순에 대해서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군주의 수신을 강조하고 집권세력을 비판하는 등 유교적 민본이념을 재천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토지문제에 있어서도 붕괴된 공전제를 재건하는 수준에서 균등한 분배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외적 모순에 대해서는 화이론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당시 한국정치사회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본질적인 위기라고 인식하고, 서양과 관련된 일체의 대상을 배격하였다.

당시 국제관계에서 그들의 이러한 교조적 태도는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눈감게 하고 쇠국을 목수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사라는 변수 앞에서 시대착오적인 성격을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노정하게 하였다. 설사 그것에서 분비된 저항성은 서양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단기적 대응책으로서의 유효성을 부분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당시 조선조 사회의 근대화를 위해서 필요했던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수용하는 길마저 저지하고 말았다.

주제어

위정척사파, 보수세력, 정통사상, 도덕적 규범주의, 화이론적 세계관

I. 문제의 제기

19세기 중엽 이후 조선조 한국정치사회는 양반정치체제의 파탄과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이라는 중첩된 도전으로 사상 초유의 체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첩된 도전으로 체제위기에 직면했던 당시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는 조선조 사회를 전반적으로 근대화하고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체제를 방위하는 것이었다(이재석, 1991 : 1). 위정척사사상, 개화사상, 동학사상 등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자임하면서 등장했던 이 시기의 사상적 대응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사상이든 당시의 그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체제의 붕괴는 물론 주권의 상실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노정하게 되었다.

위정척사사상과 그것에 토대를 둔 척사운동은 당시의 이러한 체제위기에 직면하여 기존의 지배이념이었던 주자학적 유교사상의 태내에서 배태되어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는 입장에서 서양으로부터의 외압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세계사적인 변화를 비타협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폐쇄주의로 일관했던 전형적인 보수사상과 운동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학계에서 위정척사사상은 동시대의 대안적 사상이었던 개화사상과

비교할 때, 민족주의적인 측면에서 기여를 일정 부분 긍정한다고 하더라도¹⁾ 덜 비중이 두어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당시의 위정척사파 지식인들이 근대화와 자기보존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달성하려 했던가를 규명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특별히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사상가들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치사상 내지 정치이론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정치사상은 당대 정치체제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 이른바 무질서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Spragens, 이종은 譯, 1991 : 32). 이러한 의미에서 위정척사파 지식인들의 정치적 현실인식에 대한 분석은 그들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한 예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정치적 현실에 대한 위정척사파 지식인들의 인식에 선행했던 것은 양반정치체제가 파탄되고 자본주의 열강이 침략해 오는 정치적 현실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서 당시 정치적 상황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분석하려고 하는 기왕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역사적 문맥(리얼리티)에 충실해야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²⁾ 다시 말해서 역사적 문맥에 충실하면서도 역사적 대상에 자

1) 위정척사사상을 '근대적 민족주의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학계의 평가는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나누어진다(오영섭, 1996 : 4). 전자는 위정척사사상이 민족자주 내지 민족주체에 입각한 反侵略 論理였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민족주의의 원형으로 간주하고 있고(최창규, 1972 ; 홍순창, 1975 ; 이택휘, 1987), 후자는 이 사상이 국가와 민족의 개별성과 주체성을 강조하기보다 중화문화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치중했던 事大性을 지녔다는 데 착목하여 민족주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이화, 1977 ; 진덕규, 1978).

2) 思想史는 역사적 문맥과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철학을 전개하는 思想論과 역사적 문맥에서 그것의 서술에 치중하는 事實史의 꼭 중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상

신의 철학을 투영시키는, 이른바 객관과 주관의 변증법적인 긴장관계 속에서 과거의 사상을 재현해야 하는 사상사 연구의 본래의 임무에 유의할 때, 위정척사와 지식인들을 고뇌하게 했던 당시의 정치적 현실을 보다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위정척사사상 형성기의 정치적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위정척사와 지식인들을 고뇌하게 했던 문제들을 객관화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재야의 隱逸하고 있던 士林들을 위정척사와 지식인들로 전환시켰던 자극물들을 선별하는 일이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본고의 핵심적 과제인 위정척사와 지식인들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대내적 위기와 대외적 위기에 대한 인식으로 각각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에 이르고자 한다.

II. 형성기의 정치적 상황³⁾

조선조 후기사회에서 보수적인 사상과 운동을 견인했던 위정척사파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극복의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적 현실, 즉 당시 한국정치사회가 직면했던 체제위기의 본질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

사 연구자 내지 사상사가의 임무는 역사에 의해 자신이 구속되는 것과 역사적 대상에 자신이 작용한다는 것, 이른바 변증법적인 긴장을 통해 과거의 사상을 재현하는 것이다 (丸山眞男 外, 고재석 譯, 1997 : 36-40).

- 3) 조선조 후기 한국정치사회가 직면했던 정치적 위기에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상이 위정척사 사상이고, 진보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상이 개화사상이다(윤순갑, 2003 : 95-101). 따라서 두 사상이 극복의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적 상황은 동일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부분의 서술은 필자의 선행연구의 분석(윤순갑, 1999 : 7-12)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하면 정치사상은 당대의 정치적 상황(구체적으로는 ‘정치적 위기상황’)을 胎盤으로 해서 성장하는 위기의 산물이기 때문이다(Spragens, 이종은 譯, 1991 : 36). 따라서 여기서 검토하려는 형성기의 정치적 상황은 지배층으로서의 士林들을 사상가 집단으로서의 위정척사파로 전환시켰던 조선조 후기 한국정치사회가 직면했던 정치적 위기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된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위정척사파의 형성기였던 조선조 후기의 한국 정치사회가 직면했던 정치적 위기상황에는 크게 두 개의 가닥이 존재했다. 한 가닥은 당시 조선조 정치체제의 내부적 환경(즉, 국내정치 환경)에서 관찰되는 것이고, 다른 한 가닥은 정치체제의 외부적 환경(즉, 국제정치 환경)에서 포착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두 개의 가닥이 각각 독립적이며 분절적인 양태를 띠면서 기능했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기능하면서 전체적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여기서는 이러한 두 가닥으로 관찰되는 위기를 중심으로 위정척사사상 형성기의 정치적 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체제내적 상황 : 봉건적 모순

주자학적 유교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했던 조선조의 정치체제는 대내적으로는 유교이념에 입각한 신분제 사회의 위계질서가 국왕과 관료간의 균형을 이룬 견제(Palais, 1973 : 285)를 통해서, 대외적으로는 華夷論적 세계관에 입각한 사대교린정책을 통하여 비교적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정치체제의 대내적 안정은 강력한 왕권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볼 때, 선조시대부터 시작된 黨爭은 왕권과 관료 사이의 균형을 붕괴시켰다. 그 후 영·정조기에 탕평책이 시도되기도 하였지만 파괴된 균형은 회복되지 않았다.⁴⁾ 더구나 17세기 이래 발전하기 시작한 조선조 한국사회에서의 자본주의

적 생산관계는 19세기에 이르러 이전까지의 봉건적 사회관계가 지니는 규정력의 현저한 약화를 특징으로 하는 봉건적 모순을 심화시킴으로써 체제의 대내적 위기를 배가시켰다.⁵⁾

19세기 초반의 평안도 농민봉기(일명 '홍경래난', 1811~1812)를 필두로 한 三南 지방의 농민봉기(1862)가 이러한 현상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반발했던 일련의 농민봉기는 17세기 이래 조선조 사회에서 계속되어 온 경제적 생산력의 발전과 계급구성의 변화라는 토대의 변동에 일정하게 조응하여 체제모순의 최대 담지자였던 농민들이 봉건사회를 부정하면서 전개했던 변혁운동으로서(박찬승, 1987 : 377), 기본적으로 봉건적인 왕조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일상적인 정치적 일탈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있어서 사회경제구조의 변동은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농법개량과 농업생산력의 발달, 상품화폐경제의 보급에 의해 야기되었던 것이다. 특히 선진적인 미작지대이고 유통경제가 크게 발달했던 삼남지방에서의 농민층의 분해는 괄목하리만큼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이와 함께 농법의 발달과 노동력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를 활용한 지주와 富民들의 지주경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지주경영의 확대는 반사적으로 소농경영의 영세화와 자영농민층의 몰락을 급속하게 진전시킴으로써 토지로부터 유리된 농민을 대량으로 발생시켰다(김용섭, 1970 ; 이세영, 1985).

여기에 덧붙여 국가의 민에 대한 경제적 지배의 표현인 수취체제의 모순

-
- 4) 강력한 왕권 하에서는 당쟁도 관료정치와 견제와 균형현상이었다고 볼 때, 그것은 조선조 사회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양태 가운데 하나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신복룡, 1991 : 142~146).
- 5) '봉건적 사회관계가 지니는 규정력의 약화'라는 말의 의미는 토마스 쿤(Tomas S. Kuhn)의 표현을 빌리면, 이른바 과학혁명의 전단계로서 아무리 애를 써도 전문적 예측과는 들어맞지 않는 광범위한 '異常'(anomaly) 현상의 징후를 말한다(Kuhn, 김명자 譯, 1992 : 25).

과 在地 세력의 불법적인 향촌지배도 체제의 대내적 위기를 증폭시켰다.⁶⁾ 조선조는 방대한 관료제와 군사조직과 같은 국가의 여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였다. 바로 이러한 재정은 봉건적 신분제와 저급한 상품화폐경제에 기반을 둔 田政·軍政·還穀을 중심으로 한 봉건적 수취체제를 통해서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르러 이러한 수취체제는 대대적인 신분제의 변화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른 파행성을 노정함으로써 농민의 수탈만을 가중시켰다.

이상과 같은 사회경제구조의 변동은 소농경영을 영세화하고 자영농민을 몰락시킴으로써 대대적으로 농민층을 분해시켰으며, 이것에 대한 정부의 고식적인 대응은 수취체제의 모순과 재지세력의 불법적 향촌지배와 결부됨으로써 농민의 수탈을 가속화시켜 토지로부터 그들을 대량으로 유리시켰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의 조선조의 위기는 봉건적인 왕조사회에서 관찰되는 일상적인 정치적 일탈과는 차원을 달리 하는 위기로서, 봉건적 사회관계가 지나는 제규정력의 전반적인 무력화에서 오는 구조적인 체제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인 체제위기를 궁극적으로 극복해야 할 사회적 기제(machanism)였던 당시 조선조의 정치체제는 왕과 관료 사이에 존재해야 할 균형의 붕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소수의 문벌 가문만이 世道를 독점하는 이른바 勢道政治로 퇴행하였다. 특히 세도정권 아래서 상품경제의 이권을 독점함으로써 그 자체의 존립기반을 가질 수 있었던 중앙정치권력은 지방에 기반을 둔 중소지주층이나 수공업 내지 상업을 바탕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중소 상공업자층의 직간접적인 정치참여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⁷⁾ 체제모순의

6) 19세기에 들어와 노론 일당전제가 장기화되면서 중앙 진출을 차단당한 지방의 士族들은 국가로부터 향촌통치를 이념적으로 위임받았음을 강조하고 수령의 비호 아래 불법적인 지배를 행하였다.

7) 주자학적 정치이념에 충실한 이른바 '士林政治'는 중앙과 지방, 즉 중앙관료와 재야 山

최대 담지자였던 농민들의 사회변혁의 염원에 대해서도 외면함으로써 한국사에서 19세기를 봉건적 모순의 강도가 臨界 상황에 도달한 ‘농민항쟁의 시대’로 만들고 말았다.

2. 체제외적 상황 : 민족적 모순

위정척사사상 형성기의 체제내적인 상황이 중세적 사회관계의 규정력의 상실에서 비롯된 봉건적 모순을 핵심으로 한 위기로 점철되었다고 한다면, 체제외적인 상황은 이른바 서세동점으로 상징되는 서구의 충격(western impact)에서 야기된 민족적 모순을 기본축으로 한 위기에 봉착했다.⁸⁾ 당시 西歐 열강들은 자신들의 문화질서였던 기독교의 확산을 통하여 親서구적인 문화적 토대를 구축함과 동시에 우월한 군사력을 앞세워 자본주의적인 상품 시장을 세계적 규모로 확대하고자 했다. 이러한 서세동점의 격랑 앞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외관계를 유지해왔던 조선조의 한국사회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조선조에 있어서 서학(주로 천주교와 자연과학적인 측면)과의 조우는 일찍이 16세기 말까지 소급되지만(박충석, 1982 : 195), 초기에는 서학이 하나의 학설로 소개되는 데 그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태도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어서(이상익, 1997 : 55), 단지 하나의 이단으로 배척받았을 뿐이었다.

林的 유기적 연결에 기초한 정치였다. 그러나 순조(1800~1831 在位) 이후 중앙정치가 일부 京華巨族적 외척문벌에 의해서 권력이 독점되는 ‘세도정치’로 변질되자 지방사회의 여론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는 차단되었다(유봉학, 1989).

- 8) 세계사적으로 볼 때, 16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서세동점은 동양의 특산물을 유럽에 전매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중개무역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18세기를 거치면서 산업혁명에 성공한 유럽 열강들은 동양을 단순한 중개무역의 대상이 아니라 자국의 원료공급지와 상품시장으로 간주하여 약탈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조좌호 1980 : 434~442).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조선조 후기의 한국사회에서 대외적 위기를 야기했던 서세동점은 후자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서학(주로 천주교)이라는 이질적 문화를 품도라는 문화적 가치 질서에 대한 이단으로 배척하는 데 그쳤었다. 그 후 차츰 신자가 나와 천주를 받들며 제사를 폐하는 사례가 나오자, 이를 無父無君의 금수의 행위로서 예교질서를 파괴한다고 보고 이러한 천주교를 탄압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의 辛亥迫害(1791)부터였다.⁹⁾

그러나 186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구의 충격으로부터 오는 조선조의 대외적 위기는 제너럴 셔만호 사건(1866), 병인양요(1866), 신미양요(1871) 등 서양세력의 구체적인 來侵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전의 이질적인 문화체계에서 오는 간접적 도전과는 달리 거함과 함포를 앞세운 물리적 힘으로 통상과 개항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도전은 淸이 서양세력에게 굴복한 지 오래며,¹⁰⁾ 이에 덧붙여 영·불연합군에 의해서 북경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여서 지배층에게 커다란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조선조는 통상과 개항을 요구하는 서양세력의 이러한 압력에 대하여 반동적인 척사이념에 바탕을 둔 쇄국정책으로 대응함으로써 일시적으로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일본을 매개로 해서 세계적 차원으로 팽창해 왔던 서구 자본주의에 굴복하고 말았다(1876). 이러한 체제외적인 정치상황은 조선조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왕조 창업 이후 화이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사대교린정책의 전면적인 변경을 강요하는 위기였다고 할 수 있으나,¹¹⁾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수립과 자기방어를 동시에 요구하는 위기(문승

9) 일명 '珍山事件'으로도 알려져 있는 신해박해는 한국 천주교사상 최초로 순교자를 낸 사건이다(이능화, 1968 : 27).

10) 서양제국과의 관계에서 조공형식의 무역과 무역량의 규제를 통하여 유지되었던 중국의 주도권은 아편전쟁(1840)에 이은 남경조약(1842)과 에로우호사건(1856) 후 영·불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체결된 천진조약(1858)과 북경조약(1860) 이후 상실되었다(이광린, 1982 : 2~3).

11) 한국사에 있어서 이 시기 이전까지의 침략과 도전은 동일한 체제로부터의 동질적인 침

익, 1976 : 160)였다고도 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시기에 있어서 서양의 압력은 문화적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종속과 지배를 강요하는 제국주의로서, 조선조로 하여금 민족적 자아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민족적 모순을 자각케 하는 상황을 조성하였다.

Ⅲ. 정치적 현실인식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19세기 중엽 이후 조선조의 한국정치사회는 대내외적으로 봉건적 사회관계가 지니는 규정력의 현저한 약화를 특징으로 하는 봉건적 모순과 서세동점으로 상징되는 자본주의적인 서구열강의 침략에서 야기된 민족적 모순으로 왕조 창업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여기서 이러한 위기에 직면했던 조선조의 한국정치사회에서 개화사상, 동학사상 등과 더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사유의 하나로서 보수적 사상과 운동을 주도했던 위정척사파 지식인들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였던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릇 일군의 정치 사상가 내지 정치 이론가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인식은 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적인 과제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정척사파의 정치적 현실인식을 검토하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당시의 한국정치사회가 직면했던 대내외적인 위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였던가를 검토하는 것으로서, 결국 위정척사파의 정치사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상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라

략과 도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상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의 서구로부터의 침략과 도전은 문화적인 측면(서양문화)에서나 체제적인 측면(산업혁명을 거친 근대체제)에서 이질적인 것이어서 새로운 사상적 대응이 필수적이었다(신용하, 1987 : 124~125).

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치 사상가는 정치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의 근원을 진단하고 처방적인 제안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다음 몇 가지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첫 번째 문제는 동일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인식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정척사파로 汎稱되는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당대의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 지엽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규명하고자 하는 위정척사파의 정치적 현실인식은 지엽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위정척사파 지식인들 사이의 인식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현실인식에 있어서 동시대의 대안적인 사상들¹²⁾과 확연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위정척사파의 공통적인 사상적 경향성을 추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위정척사파의 정치적 현실인식을 분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준거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위정척사파 지식인들로 하여금 ① 위기 내지 무질서로 인식하게 했던 기본적 시각을 검토한 후, 그들이 당대의 정치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가졌던 인식을 ② 대내적 위기에 대한 인식과 ③ 대외적 위기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각각 규명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분석방법은 일견 명료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양 차원의 문제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중첩되는 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1. 현실인식의 기본적 시각

여기서는 위정척사파의 정치적 현실인식을 본격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예

12) 조선조의 정치사상 지형에서 이 시기를 입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보수적인 위정척사사상, 진보적인 개화사상, 그리고 절충적인 동학사상 등으로 분화된 양태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윤순갑, 1996 : 8).

비 작업으로서 그들의 현실인식에 貫流하고 있는 기본적 시각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조 한국정치사회에서의 정통사상은 주자학적 유교사상이었으며 이러한 사상의 최대 담지자는 통치엘리트의 원천으로서의 사람들이었다. 특히 조선조의 주자학은 道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강한 도학적 전통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주자학적 유교사상을 원천으로 한 위정척사론은 도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으며,¹³⁾ 그것의 핵심은 關異端論과 尊王攘夷論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당시 위정척사파 사상가들의 기본적 시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주자학적 유교사상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도덕적 규범주의를 견지했었다(박창석, 1997 : 257). 물론 그들의 도덕적 규범주의는 건국 이후 통치이데올로기화 된 주자학을 이론과 실천의 차원에서 개념화된 것으로서, 도의문명의 실현여부에 따라서 ‘華’와 ‘夷’를 준별하고, ‘中華’였던 明이 夷狄인 청에게 정복된 상황에서 이제 중화의 정통은 조선에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들은 약육강식을 일삼으며 通貨通色을 주장하는 서양세력은 이적보다도 못한 禽獸라고 주장하면서, 중화의 정통이며 도의문명의 유일한 보루인 조선이 ‘일맥의 陽氣’를 잘 보존해서 다시 광명세계가 도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는 의식을 가졌다.

둘째, 그들은 ‘道’를 ‘本’으로 보고, ‘器’를 ‘末’로 규정하는 본말론적 가치관에 따라서 당시의 모든 상황과 사물을 인식했다(이상익, 2004 : 6). 즉, 기는 시공간적으로 유한한 가치이지만 도는 시간적으로 영원하며 공간적으로

13) 도학의 근본정신은 도의 정통인 도통에 따라 도를 옹호하고 부지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도통을 중시하는 正統論과 이와 표리관계에 있는 關異端論이 사상적 측면에서 핵심이었다. 그리고 도학적 전통은 대내적으로는 綱常論이고 대외적으로는 華夷論으로 나타나서 정치적 측면에서는 尊王攘夷論이 그 핵심이었다. 따라서 한말의 위정척사론은 강한 도학적 전통을 지닌 조선조의 주자학적 유교이념 중에서 벽이단론과 존왕양이론에 사상적 바탕을 두고 있다(윤순갑 외, 1995 : 219~221).

보편적이라는 주자학적 道器論에 입각해서 가치의 위계를 설정했다. 물론 그들도 도는 ‘至尊’이며 기는 ‘至寶’라고 했던 것으로 미뤄봐서 기를 무시했던 것은 아니지만,¹⁴⁾ 적어도 가치의 수준에서 위계를 논한다면 기보다 도가 소중하므로 우선적으로 도가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

셋째, 앞서 언급된 모든 시각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이상주의 내지 낙관주의적 관점을 소유하였다. 그들의 이상주의는 현실을 외면하다는 의미에서의 이상주의가 아니라, 올바른 이상에 입각해서 현실을 비판하고 바로잡고자 했다는 것이다. 현실은 욕망의 세계이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위정척사파 지식인들은 인간다움의 보루로서 도덕을 실현하고 힘이 아닌 옳음이 지배하는 사회를 지향했다(이상익, 2004 : 7).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이상을 지향함에 있어서 설사 현실적 장애가 있고 성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신념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미래의 결과를 낙관하는 태도를 가졌던 것이다.¹⁵⁾

2. 대내적 위기에 대한 인식

여기에서는 위정척사파 지식인들이 조선조 후기 한국정치사회가 직면했던 대내적 위기를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검토하려고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의 대내적 위기의 핵심은 중세적 사회관계의 규정력의 상실에서 비롯된 봉건적 모순이었다. 물론 이 시기의 위정척사 사상은 조선조의 정치사회가 직면했던 체제내적인 위기가 아니라, 서세동점에서 비롯된 체제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정치적 사유였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서 본다면, 그들의 대내적 위기에 대한 인식은 극히 미약했거나 대외적 위기에

14) 『華西雅言』卷1 頁12. “…… 道是天地萬物之至尊 器是天地萬物之至寶”

15) 자연주의적 낙관성이 들어 있는 주자학(박충석, 1982 : 203)의 변용으로서 조선조 말엽의 위정척사론 역시 그와 같은 낙관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이재석, 2002 : 145).

대한 인식에 부수된 지엽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설령 그러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당대의 정치사회가 직면했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의 논리로 대응했던 위정척사와 지식인들의 정치적 현실인식의 전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이들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며, 또 이러한 목적은 당시 정치체제의 전반에 가해졌던 모든 객관적 위기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당시의 위정척사와 지식인들이 조선조 후기의 한국사회에서 중세적 사회관계의 규정력 상실에서 비롯된 봉건적 모순을 어떻게 조망했는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위정척사와 지식인들이 기본적으로 당시 상황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체제붕괴로까지 전화될 수 있다고 인식했던 부분은 대내적 위기가 아니라 서세동점에서 비롯된 대외적 위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던 대외적인 모순에서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인식의 기본적 시각은 철저하게 본말론적인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래서 ‘말’로 간주되었던 체제외부적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본’에 해당하는 체제 내부에서 탐색했다. 이른바 內修外攘論이 그것이다. 즉, 내부 문제가 가지런해지면 설령 서양세력이 침략해 온다고 해도 능히 격퇴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그들의 이러한 인식은 병인양요 직후 작성된 기정진의 다음 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의 원기가 허약하면 客邪가 들어오고 나무 가운데가 썩으면 벌레가 생긴다. 오늘날 요사스러운 오랑캐(서양세력)가 세상에 날뛰는 것은 다 生靈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妖魔를 진압하고 凶醜(서양세력)를 소멸시키는 방법에 어찌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內修에 충실을 기하면 천인이 嚮습하고 외부의 사악한 무리들은 저절로 물러간다.”¹⁶⁾

위정척사파 지식인들은 서양세력의 침략을 내수외양의 관점에서 그것을 유인하는 내부적인 요인이 국내 세력의 호응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 호응 세력이 없다면, 서양 세력이 침략해 온다고 해도 충분히 격퇴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위정척사파 지식인들은 바로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국내에서 서양 세력에게 호응하는 세력이 형성되는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즉, 국내에서 서양 세력에게 호응하는 세력이 형성되는 이유는 나라를 원망하고 배반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나라를 원망하고 배반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恒産이 고갈되었기 때문이고, 향산이 고갈되는 이유는 聚斂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들의 이러한 진단은 이하로의 다음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근일에 양적이 창궐하는 것은 진실로 그 까닭을 살펴보면 사실상 우리 백성이 內應하기 때문이다. 우리 백성이 내응하는 것은 민심이 나라를 원망하고 배반하기 때문이며, 민심이 원망하고 배반하는 것은 恒産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향산이 고갈된 것은 聚斂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¹⁷⁾

이러한 인식들로부터 위정척사파 지식인들이 국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서양세력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부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서양세력의 침략이 없었다면 관심을 갖지 않았을 문제들을 체제를 위협하는 외부적 충격 때문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위정척사파 지식인들이 국내적 모순을 비록 정면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내수외양론에서 ‘內修策’을 논하면서 당시 조선조 한국정치사회가 노정

16) 『蘆沙集』卷3 頁7. 「丙寅疏」, “人之元氣虛 而客邪入焉 木之中心朽 而虫蠹生焉 今日妖胡之橫行於天下 蓋以天下生靈不振也 然則吾之所以鎮伏妖魔 消滅凶醜者 亦豈有他術哉 不過曰盡吾內修之實 則天人嚮合 外邪自退矣”

17) 『華西集』卷3 頁21. “近日洋賊猖獗 苟求其故 則實由於我民之內應 我民之內應 由於民心之怨叛 民心之怨叛 由於恒産之罄竭 恒産之罄竭 由於聚斂之不息”.

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모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들의 '내수책'은 내용적으로 군주 통치론, 관료체제 정비론, 사회경제적 개혁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재석, 1991 : 129). 그러나 본고의 관심은 봉건적 모순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개혁론에 있다.

먼저 그들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부터 살펴보자. 먼저 기정진은 서양 세력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內修의 조목을 모두 말하자면 매우 번잡하지만, 그 요체는 ‘結人心’에 불과하다”¹⁸⁾고 했으며, 유인석도 “오늘의 일은 합쳐서 하나가 되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다”¹⁹⁾고 하면서 다 같이 백성들의 일치단결을 통한 사회통합을 강조했다. 외세의 침략에 직면하여 사회통합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결인심’의 방책은 고작해서 군주의 수신을 강조하고 집권세력을 비판하는 등 유교적 민본이념을 재천명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 그들의 이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은 양반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신분제도를 통렬하게 비판했던 한 세기 전의 실학파 사상가들의 수준에도 미달했을 뿐 아니라, 양반제도의 존속과 국가의 폐망을 등치시켰던 동시대의 개화파 지식인들의 인식과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어서 경제적 문제에 대한 위정척사와 지식인들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배층의 수탈에 따른 향산의 고갈 때문에 서양세력이 침략해 온다고 진단했던 이항로는 토지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서 公田法(즉 정전제)의 회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華西集』下), 기정진도 사적인 토지점병으로 공전제 이념이 붕괴된 현실을 적시하면서 토지제도의 문란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내수의 핵심과제라고 주장하면서(『蘆沙集』卷3「壬戌擬策」), 토지제도의 모순을 매우 중요한 경제적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그

18) 『蘆沙集』卷3 頁7. 「丙寅疏」, “內修之事 言其節目則甚繁 而其要歸 則不過結人心三字”.

19) 『毅菴集』卷36 頁51. “今日事 合而一則成 不合而一則不成”.

러나 정작 그것의 해결방향은 균등한 분배를 통한 養民만을 지향했을 뿐, 생산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근본적인 해결에는 크게 미흡했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위정척사파 지식인들의 대내적 모순에 대한 인식은 서세동점에서 비롯된 대외적 모순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촉발된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당시 조선조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던 논리적 개념장치는 주자학적 유교사상의 본말론적 가치관과 이것으로부터 도출된 내수외양론이었다. 따라서 '결인심'의 방책으로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주의 수신을 강조하고 집권세력을 비판하는 등 유교적 민본이념을 재천명하는 것에 머물고 있으며, 토지문제에 있어서도 붕괴된 공전제의 재건으로 균등한 분배에만 관심이 있었다.

3. 대외적 위기에 대한 인식

위정척사파 지식인들은 앞에서 본 대내적 위기를 지엽적이면서도 말단적인 것으로 인식했던 것과는 달리, 물리적 힘을 앞세우고 통상과 개항을 요구하는 서양 제국의 압력에서 야기되는 대외적 위기야말로 조선조 한국 정치사회가 직면한 본질적 위기라고 인식했다. 왜냐하면 위정척사론 자체가 조선조 후기의 정치사회가 직면했던 서세동점이라는 체제외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위기를 본격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정치적 사유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이러한 위기 인식은 자신들이 신봉해 온 주자학적 유교사상의 강한 도학적 전통에서 비롯된 '벽이단론'과 '존왕양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이 시기의 위정척사론은 주자학적 유교사상의 도학적 전통을 아버지로 하고, 서세동점이라는 체제외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위기

를 어머니로 해서 태어난 정치적 사유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바로 그러한 정치적 사유의 담지자였던 위정척사파 지식인들이 서세동점으로 야기된 대외적 위기를 어떻게 인식했던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당시 한국 정치사회에서 대외적 위기를 야기했던 구체적인 대상들이 역사적으로 변화해왔지만,²⁰⁾ 그것의 핵심은 서학과 서양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서학과 서양에 대한 위정척사파 지식인들의 인식을 살펴보자.

서양 신부가 조선에 잠입하여 천주교를 전파하는 것이 발각되었을 때부터 서학과 서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특히 19세기의 6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었지만,²¹⁾ 이것을 체제 위협적인 존재로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병인양요(1866)부터였다.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점령하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서울을 압박하는 미증유의 사태에 즈음하여, 위정척사파 지식인들은 이러한 서양세력들을 ‘부국강병’(상품과 군대), 즉 ‘공리’(공리)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앞서지만, 인륜적 예의문물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금수에 불과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들이 화이론적 관점에서 서양을 필연적으로 이적보다도 열등한 금수일 수밖에 없다고 인식했다는 사실은 이항로와 김평묵의 다음 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 위정척사론의 전개양태를 고찰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것은 ‘서구’라는 이질성과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대응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위정척사론은 문화적 위정척사기, 경제적 위정척사기, 정치적 위정척사기, 군사적 위정척사기로 나누어 검토되어야 한다(윤순갑 외, 1995 : 223~224).

21) 18세기 말부터 시작된 조선조에 있어서 천주교 탄압정책은 燕京으로부터 不敬邪書의 구입금지(1786), 신해박해(1791), 신유박해(1801), 정해박해(1827), 을해박해(1839), 병오박해(1846), 경신박해(1860), 병인박해(1866) 등에서 보듯이 19세기 중엽까지 계속되었다.

동북의 기는 양과 義를 주로하고, 서남의 기는 음과 利를 주로 한다. (……)
 동방의 바야흐로 떠오르는 기를 타고 난 사람들은 性命의 善에 상달하는 경우가
 많고, 서방의 장차 지는 기를 타고 난 사람들은 形氣의 私에 하달하는 경우가 많
 다.²²⁾

(……) 그럼으로 중국 사람과 우리 동방 사람은 모두 인류이다. 서양은 오행
 의 치우친 기를 얻었고, 또 서남은 陰方으로서 利를 주로 삼는다. 따라서 耳目과
 心智가 통한 것이 禽獸의 기능에 불과하다. 그럼으로 서양 사람은 모두 금수
 다.²³⁾

서양을 이처럼 선천적으로 금수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정척사파 지식인들
 의 인식은 서양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것으로 연장되어, 洋教(천주교)와 洋
 物(서양 상품) 그리고 군대까지 삼위일체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순차
 적으로 정리하면, 서양세력들이 양교와 양물을 매개로 국내에 그들에게 호응
 하는 세력을 부식시킨 뒤에 군대를 몰고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신유박해(1801) 당시에 황사영의 백서사건이라든가 프랑인
 리델신부와 함께 탈출했던 국내의 천주교도들이 병인양요 당시에 프랑스군의
 길잡이 노릇을 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이 깔려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병인양요가 있는 후에 이항로가 조정에 올린 상소문에 잘 나타나 있다.

자고로 異端이 사람의 심술을 미혹시키는 것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마는 양
 교(천주교)보다 심한 것이 없으며, 자고로 夷狄이 남의 나라에 재앙을 끼치는 것
 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마는 洋賊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대개 양적들이 우리
 나라에 몰래 들어와 邪學을 널리 전파하는 것은 어찌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매개로 자기들의 黨與를 심어놓아, 내외에서 서로 호응하여 우리의 허실

22) 『華西雅言』卷10 頁19. “東北之氣 主陽主義 西南之氣 主陰主利 (……) 稟東方方升之氣
 者 多上達性命之善 稟西方將夕之氣者 多下達形氣之私”

23) 『重菴集』卷38 頁1. “(……) 故中國之人 我東之人 皆人類也 西洋得五行之偏 而西南陰
 方也 陰方主利 則耳目心智之所通者 不過禽獸之技能耳 故西洋之人 皆禽獸也”

을 정탐하고, 군대를 이끌고 침입하여 우리의 衣裳을 더럽히고, 우리의 貨色을 약탈하여 한없는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²⁴⁾

위정척사파 지식인들의 눈에는 선천적으로 금수일 수밖에 없는 양적들이 국내에 잠입하여 그들의 양교를 전파하는 질서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정학을 밝히는 동시에 滅倫亂常의 사학을 철저히 금지하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었겠으나, 병인양요 이후 군대를 이끌고 밀려오는 서양세력들의 군사적인 압력과 이들이 제기하는 개국과 통상의 요구는 체제 자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도전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이항로는 개국과 통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서양상품도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작용을 한다고 보고 국가적 차원에서 양물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기정진 역시 서구열강이 개국과 통상을 요구하는 궁극적인 의도가 경제적 침탈과 문화적 정체성의 손상뿐만 아니라 정치적 주권의 박탈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래와 같이 설파하였다.

(……) 그들의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은 우리나라를 屬國으로 삼고, 우리 강산을 倉庫로 삼고, 우리 예절바른 백성을 奴僕으로 삼고, 우리 어여쁜 소녀들을 잡아가고, 우리 백성들을 금수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통의 길이 열리면, 저들이 추구하는 것은 차곡차곡 방해받음이 없이 모두 저들의 뜻대로 될 것이니, 2~3년이 지나지 않아 殿下의 赤字들은 서양에 동화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장차 누구와 더불어 君王 노릇을 하실 것입니까?²⁵⁾

이상에서와 같이 위정척사파 지식인들은 주자학적 유교사상의 도학적 전

24) 『華西集』卷3 頁22. “自古異端 蠱人心術者 何限 而莫甚於洋教 自古夷狄 禍人國家者 何限 而亦莫甚於洋賊 蓋洋夷之潛入我國 廣傳邪學者 豈有他哉 欲以植其黨與 表裏相應 債我虛實 率師入寇 糞穢我衣裳 奪掠我貨色 以充谿壑之欲也”

25) 『蘆沙集』卷3 頁2. 「丙寅疏」. “(……) 其無厭之谿壑 欲附庸我國家 帑藏我山海 奴僕我衣冠 漁獲我少艾 禽獸我生靈耳 萬一開交通之路 則彼之所營 件件如意 次第無碍 不出二三年 殿下赤字 不化爲西洋者無幾 殿下將誰與爲君乎”

통을 바탕으로 개국과 통상을 요구하는 서양 제국의 도전을 당시 한국정치사회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본격적인 위기상황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바탕을 이루는 화이론의 도덕적 규범주의는 서양인식에 있어서 서양과 관련된 일체의 대상을 배척하게 함으로써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도 눈을 멀게 하였으며, 서양을 금수로 규정짓는 독선으로 때문에 국제정세를 외면하고 쇠국을 묵수하게 하였다. 바로 이러한 현실인식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처음부터 개화와 지식인들과 다른 도정을 견게 하였으며, 개항 이후에는 집권 사대파와도 결별하게 하였다.

IV. 결론

일반적으로 정치사회에서 기능하고 있는 정치사상 내지 정치이론의 호소력과 생명력은 그 사회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정치적 현실과의 관계에서 포착되는 정합성, 즉 정치상황에 대한 진단의 정확성과 처방의 적실성(relevance) 여부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정치상황과의 관계에서 정합성을 상실한 정치사상 내지 정치이론은 아무리 정교한 논리를 구비하고 미려한 어구로 수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낱 공허한 관념의 유희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19세기 중엽 이후 한국정치사회에서 전형적인 보수세력이었던 위정척사파 지식인들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분석하였다.

주자학적 유교이념에 입각한 신분제 사회의 위계질서가 국왕과 관료 사이의 균형을 이룬 견제로 대내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고, 화이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사대교린정책을 통하여 대외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조선조 한국사회는 18, 19세기에 이르러 대내외적인 모순이 심화되면서 총체적인 체제

위기에 직면하였다. 당시 조선조 한국사회가 직면했던 정치적 위기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관찰된다. 하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지속적인 성장에서 비롯된 봉건적 사회관계의 무력화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했던 봉건적 모순을 핵심으로 하는 대내적 위기였으며, 다른 하나는 통상과 개항을 요구하면서 팽창해 오는 서구자본주의 세력의 종속과 지배를 강요하는 민족적 모순을 기본 축으로 하는 대외적 위기였다.

조선조 한국정치사회에서 정통사상이었던 주자학적 유교사상의 최대 담지자이면서 통치엘리트의 원천이었던 사림들은 이러한 이중적 위기에 직면하여 위정척사파 지식인으로 변신하였다. 그들은 이 사상의 '벽이단론'과 '존왕양이론'에 입각하여 당시의 체제위기를 야기하고 있던 대내외적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 동시대의 대안적 사상가들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독특한 인식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다. 그들은 도의문명의 실현여부에 따라서 '화'와 '이'를 준별하는 도덕적 규범주의, 주자학적 '도기론'에 입각해서 상황과 사물을 인식하는 본말론적 가치관, 그리고 자신들의 신념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미래를 낙관하는 이상주의 내지 낙관주의적 태도 등을 소유하였다.

먼저 대내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그들의 눈에 비친 위기는 대내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세동점에서 비롯된 대외적인 문제에 있다고 느꼈다는 데서 본질적인 위기는 아니었다. 즉 대내적 위기는 기껏해야 서세동점에서 비롯된 대외적 모순 때문에 연상되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당시 조선조 한국사회의 봉건적 모순을 정면으로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인식의 한계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수외양론에 입각해서 서세동점을 중핵으로 하는 대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통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군주의 수신을 강조하고 집권세력을 비판하는 등 유교적 민본이념을 재천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토지문제에 있어서도 붕괴된 공전제를 재건하는 수준에서

균등한 분배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와는 달리 위정척사파 지식인들은 개국과 통상을 요구하는 서양 제국의 도전을 당시 한국정치사회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본질적인 위기라고 인식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양 제국의 궁극적 의도가 경제적 침탈과 문화적 정체성의 손상뿐 아니라 정치적 주권의 박탈로 이어진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바탕을 이루는 전근대적인 화이론의 도덕적 규범주의는 서양인식에 있어서 서양과 관련된 일체의 대상을 배척하게 함으로써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도 눈을 멀게 하였으며, 서양을 금수로 규정짓는 독선으로 때문에 국제정세를 외면하고 쇠국을 묵수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그들의 현실인식은 처음부터 개화파 지식인들과 다른 도정을 견게 하였으며, 급기야는 집권 사대파와도 개항 이후에는 결별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정척사파 지식인들은 개국과 통상을 요구하는 서양 제국의 도전을 당시 한국정치사회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본질적인 위기라고 인식하고 서양과 관련된 일체의 대상을 배격하는 교조적 태도를 견지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로 그들을 견인했던 강력한 현실인식의 프리즘은 이미 한 세기 이전의 실학과 사상가들에 의해서 선구적으로 극복되었던 화이론적 세계관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현실인식의 한계성은 역사라는 변수 앞에서 시대착오적인 성격을 노정했다. 설사 그것의 저항성이 서양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단기적 대응책으로서의 유효성을 부분적으로 인정받는다 해도, 장기적으로 당시 조선조 사회의 근대화를 위해서 필요했던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수용하는 길마저 저지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蘆沙集』.

『毅菴集』.

『重菴集』.

『華西雅言』.

『華西集』.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 I』, 서울 : 일조각, 1970.

문승익, “한국 근대정치사상의 이론적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10집, 1976.

박찬승, “조선후기 농민항쟁사 연구현황,” 근대사연구회 편, 『한국중세사회 해체기의 제문제(하)』, 서울 : 한울, 1987.

박충석, “한국근대사에서의 개화적 사고의 성장,” 『정치외교사논총』 17집, 1997.

박충석, 『한국정치사상사』, 서울 : 삼영사, 1982.

신복룡, 『한국정치사』, 전정판, 서울 : 박영사, 1991.

신용하, 『한국근대사회사상사연구』, 서울 : 일지사, 1987.

오영섭, “화서학과와 보수적 민족주의 연구—그들의 위정척사론과 의병운동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1996.

유봉학, “19세기 전반 세도정국의 동향과 연암일파,” 단국대 『동양학』 19집, 1989.

윤순갑 외, “위정척사론의 정치이념적 성격,” 『평화문제연구』 제22호, 1995.

윤순갑, “개화사상의 정치이념적 구조,”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3호, 1996.

윤순갑, “西歐의 衝擊과 外壓에 대한 發想의 諸形態 : 韓末의 思想的 狀況을 中心으로,” 『동양정치사상사』 제2권 2호, 2003.

이광린, 『한국사강좌(근대편)』, 서울 : 일조각, 1982.

이능화, 『朝鮮基督教及外交史』, 서울 : 신한서림, 1968.

이상익, 『서구의 충격과 근대 한국사상』, 서울 : 한울, 1997.

이상익, “위정척사파의 외세에 대한 인식과 대응,” 『泰東古典研究』 제20집, 2004.

이세영, “18·19세기 양반토호의 지주경영,” 서울대 『한국문화』 6집, 1986.

이이화, “척사위정론의 비판적 검토,” 『한국사연구』 제18집, 1977.

- 이재석, “척사위정론에 관한 연구—외세의 도전에 대한 화서학파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문학박사학위논문, 1991.
- 이재석, “척사위정론의 이데올로기적 특성”, 『동양정치사상사』 제1권 1호, 2002.
- 이택휘, “한말의 척사위정논의”, 서울대 『한국정치연구』 창간호, 1987.
- 조좌호, 『세계문화사』, 전정관, 서울 : 박영사, 1980.
- 진덕규, “척사위정론의 민족주의적 비판인식”,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논총』 제31집, 1978.
- 최창규,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서울 : 일조각, 1972.
- 홍순창, 『한말의 민족사상』, 서울 : 탐구당, 1975.
- Palaise, James, 1973, “이조시대의 안정성”,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한국의 전통과 변천』, 서울 : 아세아문제연구소.
- 丸山眞男 外, 『思想史の方法と對象』.(고재석 譯, 1997, 『사상사의 방법과 대상』, 서울 : 소화.)
- Kuhn, Tomas S. 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김명자 譯, 1992, 『과학혁명의 구조』, 서울 : 동아출판사.)
- Spragens, Jr. Thomas Arthur, 1976, *Understanding Political Theory*, New York : St. Martin's Press.(이종은 譯, 1991, 『현대정치이론의 이해』, 서울 : 나남.)

Abstract

Wijeong-Cheoksapa's Perception of Political Reality in the Late Chosun Dynasty

Youn, Soon-Gab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Wijeong-Cheoksapa(衛正斥邪派) thinkers as a typical conservatives perceived the political reality in the late Chosun dynasty. Their perceptive framework which was based on Zhu-Xi studies(朱子學) as a Neo-Confucianism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alternative thinker's at the that time. By the this perceptive framework, Wijeong-Cheoksapa thinkers had understood internal and external disorder in the late Chosun dynasty as follows:

They had understood internal disorder as dependent and unessential issues, tried to deal with this problem by clarifying confucian doctrine and distributing agricultural land equally among peasant.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civilized and barbarians(華夷論), they had thought external disorder as essential issues which directly threatened korean politico-society, struggled against the whole which related to the Western.

Because of their dogmatic attitude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at time, Korean society kept away from the western science and technology, sticked to the national isolation policy. Resistivity which have its origin in their dogmatic attitude was good for the short term countermeasure which halt the imperialistic aggression from the Western, but obstructed that korean society receive the western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ir modernization.

Key Word

political reality, neo-confucianism, conservatives, theory of the civilized and barbarians

- 논문투고일 : 2010.4.13. 심사시작일 : 2010.7.17. 심사완료일 : 2010.7.29.